"경전 암송하며 오묘한 이치 발견하라"

Interview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출가사문 위해 〈제경요제〉 출간
1천여 권 무료 보급 나서
한글번역 · 각주로 이해 도와



"〈제경요제〉란 의미는 제방의 경전 중 핵심 되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란 뜻입니다. 최소한 출가사문이라면 〈제경요제〉에 나오는 경전 정도는 외우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또 공부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보시할 생각입니다."

〈발심수행장〉부터 〈화엄경 약찬게〉까지 23종의 제경 서문 한문 원문에 읽기 쉽게 해설과 각 주를 실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태고종 서울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은 출간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 책의 제목은 〈제경요제〉다.

책에는 고봉화상의 〈선요서〉를 비롯해 함허 득통 스님이 쓴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서설〉, 청량산 대화엄사 징관 스님이 쓴 〈대방광불화엄경소서〉 등 경론에 붙인 스님들의 서문과 원각경 보안장, 법화경 보문품, 화엄경 보현행원품 등 주요 경전의 핵심 품, 그리고 발심수행장, 선가귀감, 신심명, 증도가 등 스님들의 빼어난 선시 작품들이 들어있다.

운경 스님은 6월 7일 백련사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모든 경전은 핵심이 되는 소위 사구게가 있다. 그와 같이 이 제경서문은 모든 경전과 모든 조사어록의 사구게에 해당한다. 특히 깨달음은 문자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고, 반드시 실참해 경계를 직접 체험해야 하지만, 그래도 문자로 가장 적절히 가르친 것들이 경서라 생각해 선학들의 번역을 참조해 틈틈이 한글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현토와 한글번역은 운경 스님이, 각주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붙여 놓아 한문에 익숙지 않은 후학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운경 스님은 "경전이 너무 좋아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제경요제〉를 만들어 나눠줬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말 해석도 넣고 토도 달아서 많은 사람이 읽으며 발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경전 핵심 내용을 조망한 짧은 서문만 봐도 핵심 내용 이해는 물론 신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운경 스님의 지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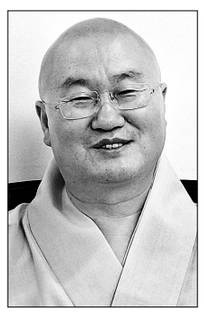
운경 스님은 마지막으로 "경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아주 오묘한 이치를 발견한다. 계속 읽고 외우다 보면 혼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 속에 이런 좋은 내용이 들어 있었구나 새삼 느끼게 된다"며 "한 가지 경전 읽는 팁을 소개하자면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중얼 거리며 외우고 암송하라. 그러다보면 진리가 그 안에서 새록새록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경전 읽는 맛이다. 여러분도 〈제경요제〉를 통해 만끽해 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경 스님은 1959년 서울 백련사서 박설호 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 했으며, 한국불교태고종 제2~6대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1990년 태고종 종승연구원장, 1996년 백련사 35세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는 회주로 있다. 1997년에는 정부로부터 신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련사 (02)303-177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지도교사 고충 해결에 앞장 설 터"

신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심산 스님



"현장에서 어린이 · 청소년포교에 땀 흘리고 있는 지도교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월 8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제37차 이사회의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 사진)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들과의 소통을 첫 과제로 꼽았다. 특히 (사)동련 이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갈 것을 다짐했다.

심산 스님은 "어린이들이 중 · 고등부를 거쳐 성인이 된다. 동련 이사장을 지내며 어린이들과 가까워진 경험을 살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많은 지방도시에 파라미타가 구성돼 있는 만큼 지도교사를 위한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이 지도교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홍법사에서 어린이 재가안거를 실시하면서부터다. 심산 스님은 "절에서 아이들 재가안거와 가족 108배 도전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펼쳐왔는데 해당 지도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다"며 "지도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사기를 높이면 곧 청소년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심산 스님은 또 "역대 회장님들에 비하면 회장을 맡기에는 이르다고 느낀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기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파워블로거 역량, 불교에 회향"

시집 〈페이지의 시 여행〉 펴낸 파워블로거 배선희 씨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제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은 낙산사의 해수관음입니다. 한국의 미, 특히 불교의 미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를 썼습니다."

첫 시집 〈페이지의 시 여행〉을 펴낸 파워블로거 배선희 씨〈사진〉의 사연이 화제다. 배 씨는 동방불교대학 1기 출신으로 건봉사 불사에도 기여하는 등 독실한 불자다. 집안 식구들이 스님으로 출가한 인연도 남다르며, 1980~90년대 베스트셀러로 이름 높았던 정다운 스님과도 문학적 교우를 나누고 있다.

배 씨는 37년간 198개국을 여행하며 이를 블로그 '페이지의 여행'에 담았다. 네이버가 2013년 선정한 한국여행 분야 파워블로거로 배 씨의 블로그는 조회수 650만에 일 접속량이 8만 명을 상회한다. 블로거에서 시인이 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는 어떻게 시집을 내게 됐을까.

배 씨는 "지난 5년여 동안 여행 블로거로 활동해오며 여행지에서의 인연과 느낀 심상을 바로바로 글로 옮겼다"며 "대부분의 글이 불교와 관련돼 있다. 시집을 접한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했다.

배 씨는 "해질 무렵 해수관음상에 걸린 구름의 모습이 마치 비천하는 날개옷과 같아 보였다"며 "수많은 여행 중에도 어떠한 사고도 없었다는 것에서 감사의 마음도 솟아났다"고 표현했다.

작은 출판사 대표도 맡고 있는 배 씨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불교계에 회향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노덕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00호(6월 8일자) 4면 일주문 중 '법화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를 '70주년'으로 바로잡습니다.

"근본 찾아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④ 한양원(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이번 제4차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이웃종교인이다. 바로 민족종교계의 대표이자 갱정유도(更定儒道)의 도정(道正)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번 순례는 한 회장의 법문을 들은 후 매주 정진하는 보광정사에서 철야 기도와 법회를 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5월 28일 도반들을 만나 민족종교협의회 본산인 겨레얼연수회관에 도착했다. 김재완 사무총장의 인솔로 3층 집무실에서 들어서니 갓과 망건을 쓰고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기른 고향마을의 친근한 어르신 같은 한 회장이 잔잔한 미소로 맞이해 준다. 다음은 한 회장과 구도회 회원들의 법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월 도반: 한국종교계와 세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한 회장: '여복거동궤자(與覆車同軌者)는 경(傾)하고 여망국동사자(與亡國同事者)는 멸(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덕에 기울어져가는 차에 함께 타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세상이 말세로 치닫는데 중생심으로 함께 따르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남이야 어찌되든 나와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의 목적달성만을 좇게 되면 결국 망하는 것이지요.

주역에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함)이라 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수양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다. 반드시 원시반본(原始返本, 근원을 찾아 근본자리로 돌아감)해서 처음의 자기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형체를 깨닫는 수행이 불도수행인데 그동안 제가 만난 효봉, 경봉, 청담 스님은 등허리가 붙을 정도로 청빈하게 살며 수행해왔습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스님들을 비롯해 모든 종교인들은 그러한 수행과 청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석준 이남재 운영책임도반

이수덕 법사: 겨레얼을 살리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지요.

한 회장: 얼과 혼이 곧 정신인데 이를 현대화하면 역사와 문화, 이념입니다. 외세의 것을 우리 것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다시 상기시켜 우리 얼과 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동안 백일장, 전국 윷놀이 한마당을 열었고, 외국에 17개 지부서 각국 학생들을 불러들여 역사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복희씨 신화에 한문이 본래 우리글이라고 했습니다. 한문은 뜻글이고 한글은 말글입니다. 갱정유도는 매년 남원에서 강경대회(사서삼경 등 옛 서당에서 배우던 교재를 음절에 맞춰 외우는 대회), 서당문화진흥회 한시대회, 서화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정은용 대표도반: 민족종교에도 많은 종파가 있고 민족얼 살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장: 일제가 민족종교를 말살했지요. 대종교, 천도교 등 자생종교는 애국심이 강해서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1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교육활동을 막으려고 민족종교들을 사이비로 몰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런 인식이 있어 정부가 민족종교를 사이비종교로 몰아 미신화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1985년 민족종교들의 협의체인 민족종교협의회를 창립하여 1991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민족종교끼리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족의 얼을 되살리고 전통문화 보존, 국민의 윤리와 도덕성 함양 등 민족의 정신을 지켜냄은 물론 우리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법빠리사 5차 108 선지식 구도순례

일시 : 2016년 7월 9~10일
장소 : 지리산 상무주암
법문 : 현기 스님
문의 : 운영책임도반 이남재 거사 (010-5217-2878)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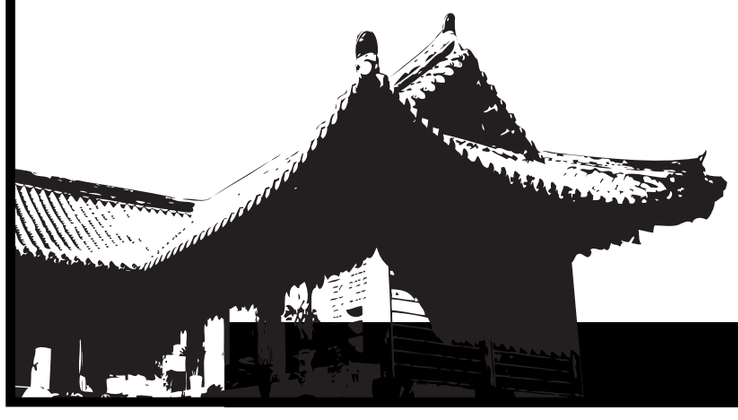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